

민생회복 소비쿠폰 초고속 지급 박차 ‘남원 달빛어린이병원’ 시민 호응

임실군, TF팀 구성·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담당자 사전교육 등 실시

임실군이 21일부터 시행되는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초고속 지급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진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구성, 발 빠른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선 15일에는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는 28일부터 실시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일 반국민(상위 10% 대상자 포함)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5만원을 지급하며, 추후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 대상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루어지며,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



임실군이 21일부터 시행되는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초고속 지급에 박차를 가한다. 앞선 15일에는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으로 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며, 지급 대상자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임실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군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임실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군민은 임실사랑상품권 앱(모바일·카드형)에서 신청하거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군

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온라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소비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맞춤형 회복 정책으로, 빠르게 지급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기록적 집중호우 신속 대응

이재민 49명 전원 안전 대피

순창군이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49명의 이재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군은 풍산면 다목적체육관에 임시대피소를 신속히 설치하고 대피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 풍산면에서는 37명의 이재민이 대피했으며, 이들에게는 구호세트와 재난 꾸러미가 제공됐고,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순찰지휘와의 협

력으로 식사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 서비스도 즉시 이뤄졌다.

순창 지역은 강우가 집중되면서 군 전체 평균 228.8mm, 최대 334mm(금과면 기준)의 폭우가 쏟아졌고, 사천과 월천 등 주요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침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즉시 가동하고, 군수 주재의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체계를 신속히 정비했다.

특히, 최영일 군수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실시



간 대응을 총괄하며,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피 지시와 자원 투입을 주도했다.

그 결과 풍산면 5개 마을 44명, 금과면 2개 마을 3명, 유등면 하촌마을 2명 등 총 49명의 주민이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했으며, 군은 군버스를 투입해 풍산면 다목적체육관 등 임시대피소로의 이송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폭염 대비 체육시설 이용 시간 일시 조정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야외 체육시설 5곳의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적용되

며,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2일간 시행된다.

운영 시간이 조정되는 시설은 △군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 △유등힐링파크골프장 △삼진강과크골프장 등 총 5곳이

다.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안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되며, 각 체육시설 현장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063-655-5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개소 한 달 만에 240명 진료…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 실효성 발휘

남원시가 지난 6월 2일 공식 개소한 ‘달빛어린이병원’이 한달만에 총 240명의 소아 진료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수치는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전북 동부권에서의 최초 지정이라는 패거리를 이뤘으며, 이로써 남원은 소아 아간진료, 공공심아과,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연계된 지역형 필수의료 선도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개소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 협의, 소아 아간진료 실태 분석, 도 및 남원의료원과의 협의, 시의회 보고 등 약 1년여에 걸친 행정절차를 총력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지역 소아과 폐업 및 진료시간 단축, 아간 진료 소아과 의원 부재, 부모들의 불편 등을 근거로 한 실태 조사 및 수요 분석 결과를 복지부에 제시하며 지정 타당성을 확보, 시 의정을 반영한 소아 아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 내 인구감소 지역 지원 기준 신설로 보조금을 확보하였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선정, 운영비 분담 방안 협의, 의료진 확보, 조력 및 행정 절차 마련 등 개소까지 전 과정을 시 주도로 일관되게 추진했다.

병원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곡성군, 장수군, 순창군 등 인근 지자체 주민



들도 이용하면서 전북 동부권 및 지리산권 소아 아간 진료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 개원 할 공공산후조리원과 더불어 산모·신생아·영유아·아동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필수 의료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고, 아간진료와 연계해 함께 문을 연 공공심아과국을 통해 약 처방의 연속성도 확보, 시민 입장에서 의료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남원시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평일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만 운영중이나, 앞으로는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시기에 맞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전일 운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공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 인력 충원,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의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침수 우려 지역 현장 지휘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은 지난 17일 늦은 저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 제1의 책무”라며, 호우경보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해 13개 협업부서와 간부 공무원들 및 읍면동장과 실시간 소통하는 등 피해 상황과 침수 우려 지역과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대응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조치는 남원에 단시간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 시장이 ‘찾아가는 현장시장장’ 등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현장에 나가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17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시 기준 남원시에는 누적강수량 최고 294mm(대강면)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62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최 시장은 산동, 산내 달궁 야영객들 신속 대피를 지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 당부와 함께 시민들이 실시간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23개 읍면동 마을방송과 문자 안내, 유튜브 및 SNS 등 총동원 정보 전달을 지시했다.

또한 최 시장은 평소 저지대로 침수 위험이 있는 남원 송동 세전, 금지 귀석 마을을 찾아 읍면동 수방자재를 활용한 강제 배수 추가설치 등 침수방지 대비 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후 재난상황실에서는 기상 특보에 따른 민악의 사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별 재난업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 춘향제, 지역축제 여행자원 추천률 2위

남원시는 지난 제95회 춘향제가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발표한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조사’에서 지역축제 여행자원 추천률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지자체별 여행자와 현지인 4만8,790명을 대상으로, 기대하는 여행자원(축제,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의향 등 항목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춘향제는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혼불문학관, ‘혼불 나의 언어 정원’ 운영

남원시 혼불문학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꽃심관 및 누마루에서 글쓰기 프로그램 ‘혼불 나의 언어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학의 정수를 평가받는 ‘혼불’ 속 언어를 탐색하고 글쓰기로 풀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혼불’의 주요 장면과 표현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써 내려가, 회차마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언어의 미학과 정서를 직접 느끼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구성, 참가 대상은 만 10세 이상이며, 회차별로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덕치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장터 운영

임실군 덕치면사무소에서 지난 17일 ‘찾아가는 문화예술 장터’가 열렸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장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장터에서는 공예품, 편백나무 베개, 스키프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연 장동무(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완충·문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